

“李 임기 내 광주·전북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과 낼 것”



인터뷰

안 호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업 투자 계획에 맞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규제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메가성장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광주·전북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놓으면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업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3대 메가 프로젝트, 저성장·수도권 과밀 해소할 해법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전북 분과 책임의원인 안호영 의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저성장과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할 해법으로 봤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연계해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에너지 자원과 제조업 기반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AI 산업의 체계를 이루는 것”이라며 “그 밑에는 에너지와 용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방향은 ‘에너지 생산 지에 산업이 들어서는 구조’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해도 이를 소비할 기업이 부족하면 발전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망 확충

반도체·AIDC·피지컬AI 육성에
전북 재생에너지 자원 연계해야
산업 성장·주민 소득증대 도모

현대차 새만금 투자 ‘핵심 사업’
투자 일정 맞춰 전력 수요·공급
당·정부 등과 예산·규제 조정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하는 안호영 의원. /최규춘 기자

과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전북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이를 산업 성장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연결할 임지를 함께 갖췄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16.7%를 생산하는 전국 1위의 재생에너지 발전기지다.

특히 안 의원은 새만금에 주목했다. 넓은 부지에 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고, 이를 전북의 자동차·농기계 등 기존 제조업 기반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태양광·서남권 해상풍력 자원과 새만금의 산업 입지를 결합해 전북에 기업 유치와 지역 협력업체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 당정 지원 모아 기업 투자 뒷받침… 대통령 임기 내 성과 창출에 주력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낼 핵심 사업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를 꼽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2월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발표하

고 로봇, AI 및 에너지 솔루션 중심의 9조 원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준비가 진행된 만큼, 당과 정부가 지원에 힘을 모으면 성과를 앞당길 수 있다”면서 “특히 현대차 투자가 전북의 그린수소 플랫폼과 첨단로봇 파운드리(위탁생산) 육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현대차의 상용차 생산 기반과 수소·로봇 분야 역량을 주목했다. “자동차 부품과 기술의 활용 범위를 로봇 산업으로 넓히고, AIDC에 축적된 정보를 제조와 자율주행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를 지역기업의 부품 공급과 공정 개선, 생산·유지관리 분야 수주로 연결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린수소는 생산설비 확충과 함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산업·운송 분야의 활용처와 저장·운송 기반, 공급가격을 구체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 투자 속도 맞춰 전력망 확충… 공급 시점 구체화

발전시설을 늘려도 전력망이 제때 연결

되지 않으면 공장과 데이터센터 가동이 늦어질 수 있기에 관건은 투자 속도에 맞춘 전력 공급이다.

안 의원은 “3대 성장엔진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 수요와 공급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정부·전북·한국전력과 협의해 시설 확충과 예산 확보, 인허가 관련 과제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전북 분과는 그린수소 생산, 첨단로봇 제조시설과 데이터센터 가동, 농생명 바이오 연구·생산시설과 스마트농업의 전력 수요를 구분해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업별 입지와 가동 시기, 필요 전력량을 송배전망 확충계획에 담아 추가 입주와 증설에 따른 수요까지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달 종합점검에서 현대차의 16개 요구사항을 비롯한 투자 관련 과제를 해결 방안과 담당 기관, 처리 시한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력 분야에서는 필요한 시설과 사업비, 공급 가능 시점을 명확히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력 공급 방식으로는 태양광·풍력·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등 여러 에너지원을 어떤 비중으로 조합해 사용할지

정하는 ‘에너지믹스’와 기업의 재생전력 조달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전력망으로 공장·데이터센터 가동을 뒷받침하고, 전북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과 저장설비를 확충해 재생에너지 100%(RE100) 이행과 그린수소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차의 태양광 1.8기가와트(GW) 추진계획 가운데 0.9GW의 계통 접속은 확보됐으며, 나머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기 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해 조달 물량과 비용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아간에도 가동하는 데이터센터와 제조 시설은 전력망·저장설비·비상전원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봤다. 수전해 설비는 생산 목표와 경제성을 따져 재생전력 생산 상황에 맞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이후의 실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업의 증설과 신규 입주를 지원하고, 연구시설에서 검증한 소재가 수요기업의 구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서남권 생산거점의 공급망에 전북 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정책금융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담=윤휘중 편집국장

정리=박태홍·박경수기자 pth72855@



metro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전북 분과 책임의원 (現)
전라과/연대 법대 졸업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
제20·21·22대 국회의원(3선)
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제37회

화도진 축제

10. 16.(금)

어영대장축성행렬
교지하사식
국악비보잉
뮤지컬화도진
개막식 및 개막공연

10. 17.(토)

지역예술인공연
어린이댄스경연대회
구민노래자랑
폐막공연

화도진공원

출타기
국악공연
마술공연
역사퀴즈
역사토크콘서트

2026. 10. 16.(금) ~ 10. 17.(토)
동인천역북광장, 화도진공원 일원